

“AI 시대에 붙들어야 할 설교의 본질은 ‘존재의 변화’”

아트설교연구원, 네 번째 설교 시리즈 《설교트렌드 2027》 출간

아트설교연구원이 설교 시리즈 네 번째 저서인 《설교트렌드 2027: 변화시키는 설교》를 출간하고, 7월 30일 서울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 내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집필 의도와 설교의 본질에 대한 문제의식을 소개했다.

이번 책은 《설교트렌드 2025》, 《살리는 설교》, 《설교트렌드 2026》에 이은 설교 시리즈의 네 번째 저작으로, ‘변화시키는 설교’를 주제로 내걸고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청중의 ‘존재론적 변화’에 두었다.

아울러 설교자의 변화에서 출발해 청중의 변화와 교회의 회복,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설교의 본질을 신학적·목회적 관점에서 조명하며, AI 시대 한국교회 강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집필에는 김도인 목사(아트설교연구원 대표), 권오국 목사(이리신광교회 담임), 이재영 목사(아트설교연구원 부대표), 박혜정 선교사(GMP 개척선교회오픈

북스 편집장), 김광균 선교사(베트남 은퇴 선교사), 석근대 목사(대구동서교회 위임), 김용대 목사(청치기교회 담임), 허진곤 목사(무주금평교회 담임), 김인해 목사(목포호산나교회 위임·사랑의언어독서연구소 소장), 이지철 목사(Next세대 Ministry 연구원·웹사이트 아카데미 강사), 김선우 목사(주성성결교회 담임), 최승국 목사(아트글쓰기운동본부 서울지역)가 참여했다.

집필진은 이날 “설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라며 “AI 시대일수록 설교자는 기술보다 말씀 앞에 먼저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현대 설교의 가장 큰 위기를 ‘정보 전달 중심의 설교’에서 찾았다. 설교가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청중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영성 형성과 존재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I가 짧은 시간 안에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는 시대를 맞아 설교자의 역할도 새롭게 조명됐다. AI는 자료 조사와 논리 구성 등에서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쁨



《설교트렌드 2027: 변화시키는 설교》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집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박혜정 선교사, 이재영 목사, 이지철 목사, 최승국 목사, 김선우 목사, (앞줄 왼쪽부터) 김도인 목사, 석근대 목사, 김광균 장로 ©김진영 기자

부음, 설교자의 삶에서 비롯되는 영적 권위는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책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에서는 설교가 ‘정보 전달’이 아닌 존재의 전향’을 목표로 해야 함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는 뇌과학과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의 근원으로 조명한다. 제3장은 청중의 영적 갈망과 변화의 필요성을 다루며, 제4장은 삶과 신앙이 분리된 이원론을 극복하는 세계관의 변화를 제안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지성과 영성, 인격을 겸비한 설교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간담회에서는 각 집필자가 자신이 집필한 내용과 책에 담은 메시지를 소개했다. 먼저 김도인 목사는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설교자는 ‘나는 누구인가, 설교란 무엇인가, 변화란 무엇인가’를 끊임 없이 질문해야 한다. 이 책이 설교와 변화의 본질을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영 목사는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집필자들이 먼저 변화했다”며 “진정한 변화는 존재의 변화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설교자는 그 사랑을 선포하는 도구일 뿐이며, 변화의 주체는 결국 성령”이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선교사는 청중의 입장에서 집필에 참여한 배경을 설명하며 “성도들도 드라마틱하지 않을 뿐이지만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 목회자들이 그 성장을 기다려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설교가 청중의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자의 지성과 영성, 인격이 함께 성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우 목사는 뇌과학을 접목한 내용을 소개하며 “사람의 변화는 회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화개와 함께 소망의 언어가 선포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을 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허진곤 목사는 “오늘날은 한 사람의 천재성보다 집단지성이 더욱 중요한 시대”라며 “이번 책에는 여러 집필자의 삶과 목회 경험을 담아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지철 목사는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전달될 때 변화가 일어

난다”며 “설교는 상처를 덮는 반창고가 아니라 근본을 치료하는 수술과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균 장로는 평신도의 시각에서 집필한 이유를 설명하며 “설교가 세상과 괴리되지 않고 성도들의 실제 삶과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평신도가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바를 진솔하게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석근대 목사는 “교인을 변화시키려는 욕심보다 내가 먼저 변화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며 “변화는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서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국 목사는 “이 책이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영적 근육통’을 선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근육은 사용할수록 성장하듯 영성도 말씀 앞에서 훈련하고 씨름할 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설교가 단순한 설명이나 지식 전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청중의 삶을 연결하는 통로가 될 때 교회와 성도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설교자는 AI가 제공하는 편의성에 의존하기보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먼저 자신이 변화된 후 강단에 서야 하며, 그럴 때 청중의 삶에도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스틸 대사, 부임 첫날 영락교회 방문 “기도로 시작하고 싶어”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출석… 방명록엔 “기도로 시작해 기뻐”

미셸 스틸(한국명 박은주) 주한미국대사가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서울 영락교회(담임 김운성 목사)를 찾아 기도했다.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스틸 대사는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이 교회를 다녔다. 스틸 대사는 이날 오후 6시경 교회에 도착해 본당에서 기도했다.

교회 관계자는 “(스틸 대사께서) 한국에 부임하는 첫 날, 기도로 시작하고 싶어 교회를 찾으셨다고 한다”며 스틸 대사가 기도 후 교회에 마련된 한경직목사기념관도 둘러봤다고 한다.

스틸 대사는 교회 방명록에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정을 기도로 시작하게 돼 매우 기쁘다. 여기 있는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I'm very happy to start my new journey in Korea with a prayer. What a blessed person I'm here)”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영락교회 담임인 김운성 목사는 다른 일정으로 직접 스틸 대사를 만나지 못해, 대신 영상 메시지를 남겼다고 교회 관계자는 전했다. 김 목사는 이 메시지에서 스틸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며 한국을 위해 애써달라고 전했다.

영락교회는 1945년 해방 이후 故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북한에서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세운 교회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틸 대사를 두고 “공산주의를 피해 용감하게 탈출한 부모를 둔 미국 우선주의 애국자”라고 평가한 바 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한 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정치 경력을 쌓아온 한국계 미국인이다. 그는 오클라호마주 수퍼바이저와 캘리포니아 주 조세청평교 위원 등을 거쳐 2020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으며, 재선에 성공하는 등 미국 정치권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지난달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성명을 발표한 후 환하게 웃고 있다. ©뉴시스

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한국계 여성으로서 미 연방 하원에 입성한 대표적 인물 중 한 명으로, 한미 관계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를 동시에 갖춘 ‘지한파’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스틸 대사는 4대째 기독교 신앙을 이어온 신앙인으로, 정치 활동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왔다

고 고백해 왔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이끄신다”며 정치 현장에서도 믿음을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교육 정책과 공공 영역에서도 성경적 가치관을 반영하려는 입장을 밝혀, 신앙과 공적 책임을 분리하지 않는 삶을 강조해 왔다.

김진영 기자

헬버트 박사 77주기, 121년 전 ‘워싱턴 비밀 특사’ 조명

‘한 국민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외국인’ 호버 헬버트(1863-1949) 박사(사진)의 순국 77주기를 맞아 그의 외교적 결



기와 독립운동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헬버트박사가기념사업회는 8월 27일 서울 마포구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백주년기념교회 선교기념관에서 ‘제77주기 헬버트 박사 추모대회를 열린다고 7월 31일 전했다.

특히 올해 추모대회는 1905년 일제의 을사늑약 강행을 막기 위해 고종황제의 비밀 특사로 미국 워싱턴에 파견되었던 헬버트 박사의 ‘워싱턴 의거’를 집중 조명한다. 사업회는 이날 ‘1905년 을사늑약 저지를 위한 고종황제 대미특사

헬버트의 워싱턴 의거’ 특집을 발간하며, 당시 그가 제국주의 열강 사이에서 대한제국의 국권을 수호하고자 벌인 긴박했던 외교 활동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북콘서트 열려 >> 3면

“AI 에이전트 시대, 생존의 핵심은 인간력” >> 7면

HASHAV, 일곱 번째 싱글 ‘주를 인정하는 것’ >> 24면

액상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 전문기업 트윈위즈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 1길 16, 4층 ☎ 055-286-9004

도료/라텍스



가전/가구 필름



기능성 페인트



라텍스 장갑



도어락/손잡이



차량용 필름/디스플레이



생활용 도료/코팅액

※ 제품의 색상, 외관 및 특성 변화 없이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